

## 월간양계 창간 13주년

이번호로 월간양계가 창간 13주년을 맞는다. 13년전 초동사무실에서 창간호를 발행한 후 (발행인 : 오봉국, 편집위원장 : 한인규) 한달도 거르지 않고 13년간 양계인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이러한 배후에는 바쁜중에도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필자들과 재정적 도움을 주신 광고주, 편집위원과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외에도 책을 직접만드는 인쇄소, 제지회사 등의 협조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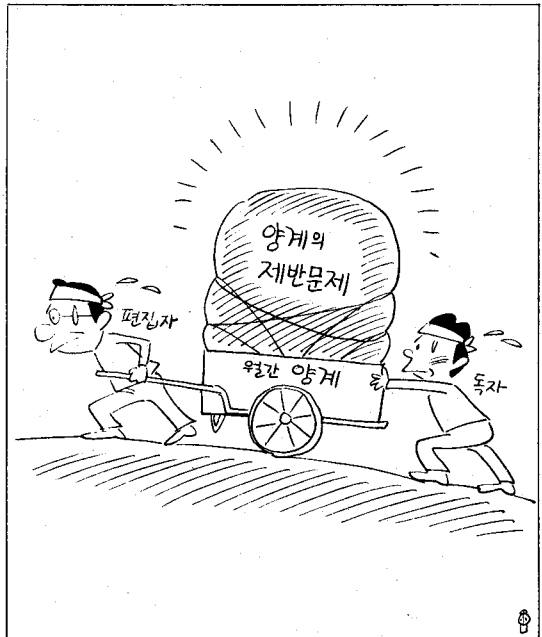
책을 만들면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독자들의 지도 편달이다. 전화로 또는 서신으로 항상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려 할때도 일어설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월간양계에 바라는 것이 큰것은 월간양계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정책 제안자로, 국내외 최신 양계정보 (이론

기술)의 신속 정확한 소개, 통계자료의 정리, 양계인 권익보호의 대변지로, 업계의 모든문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선도적 역할로, 하나의 산업으로 전진하게 발전시키는 길잡이로, 양계산물 대량소비방안 모색의 주체로, 소비자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월간양계가 진심이 크고 무거움을 느낀다.

이외에도 광고의 시각적인 면과 내용의 개선이라든가 일반 교양면의 강화, 업계뉴스의 충실보도, 양축가와의 대화확대, 양계 초심자를 위한 기초양계 강좌 및 부대사업과 양계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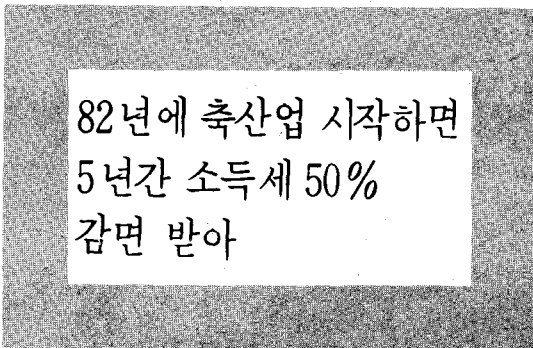
기업화에 따른 기계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을 계속 추진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알면서도 힘이 부족하여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몇번 해보고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배고픈 여우가 포도가 너무높아 따먹지 못하니까 저포도는 시다고 포기하는 경우와 같다.

창간 13돌을 맞아 지난날을 반성하며 창간호를 만드는 기분으로 새 출발을 하려 한다.

그러나 한편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도움없이 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필요하다.

더욱 많은 독자들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양계인의 대표적인 잡지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창간 13돌을 맞는 편집인들의 다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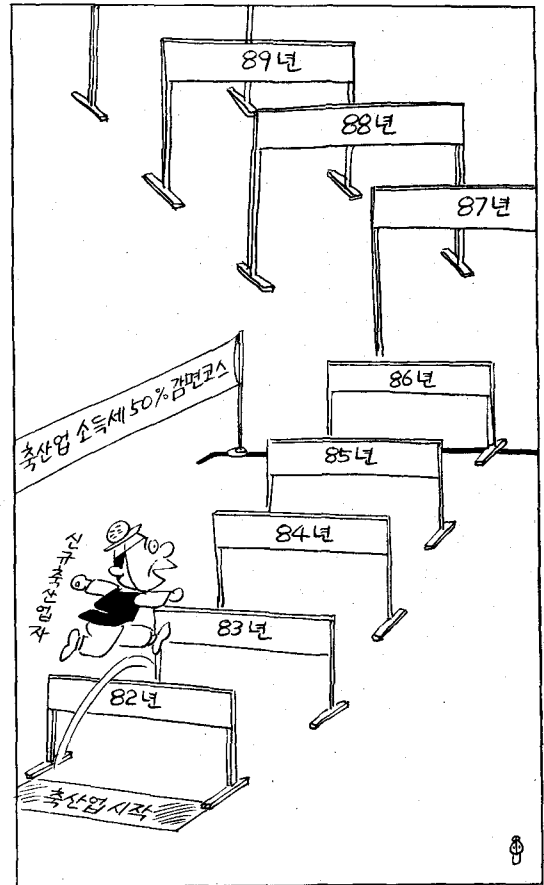


본회와 양돈 및 낙농비육협회 공동으로 재무부 등 관계요로에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건의에 대하여 재무부는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을 폐지하게된 배경을,

- 83년도 부터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대폭 인하조정되어 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광업, 축산업 등 일부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되며

- 일부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지원을 받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조세 부담면에 있어서 불공평의 문제점이 있어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축산업의 경우에 82년중에 축산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83년부터 소득공제 적용을 없애는 경우 법률생활의 안정성 보호와 기득권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86년 까지는 5년간 계속해서 50%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는 농가부업 축산범위를 현실성있게 대폭 상향 조정하여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는 회신이 있었다.

이제 내년부터 전업 내지 기업축산의 경우 어떻게 하면 소득에 알맞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는 어느 개인보다도 축협중앙회와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인 협회 등에서 공동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재인식되는 부존자원의 활용

최근 (10/26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제 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이 끝나는 86년도에 외채규모를 당초 645억불에서 500억불선으로 줄이기 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등 각 부처별로 축소방안을 마련하여 11월중에 확정 지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소방법으로는 식량증산과 에너지절약, 기계류의 국산대체 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곡물수입과 원유수입에서 100억불 감소를 위해 작업중이며 기계류는 강력히 국산대체를 실시하면 6억불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몇년전만해도 농산물도 비교우위론 이라고해서 국제시세보다 값이 비싸고 경쟁력이 없으면 수입한다는 정책에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어져야 알겠지만 외회절약을 위한 곡물수입 감소방안에 양축가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옥수수 안정기준가격 톤당 \$135로

1975년 7월 31일 사료용 도입곡류에 적용되기 시작한 안정 기준가격은 매년 2~3회정도 조정되며 운영되어 왔는데 최근 도입옥수수 가격이 크게 하락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7월 1일 \$145로 조정된이래 4개월만에 11월 1일 도착 모선분 부터 옥수수 안정기준가격이 톤당 \$135로 \$10 인하조정 되었다.

이로써 양계용 사료의 경우 3~4%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당장 사료값이 조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첫째, 11월 1일 도착모선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1개월분의 재고가 모두 사용되는 12월 초에야 조정이 가능하고,

둘째로, 사료업체의 경쟁과다로 수지가 좋지 않아 어떻게 조정할는지 궁급하다.

세째로, 당초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을 350만톤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420만톤을 훨씬 넘을것으로 보여져 국내산 부자재가 부족하여 2~3%가량 인상되었으며, 벌써 박류파동의 조

짐이 보이고 있고 270원하던 어분이 350원에도 상품(上品)구입이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강피류도 부족한 형편이라 업계는 한달동안 눈치작전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산옥수수 사용문제인데 금년에 사용한 국산옥수수('81년도 생산분)가 5만여톤이었으며 내년에는 물량이 더욱 증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금년에는 기준가 \$180에서 사용하였어도 도입옥수수와 차이가 컸는데 현재 \$135에서 국산옥수수를 사용하면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료값 조정에 큰 변수로 등장 하고 있다.

옥수수 수매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입옥수수에 비해 2.5배 이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도 현행 5%에서 소폭이나마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있어 사료가격 인하조정은 상당한 진통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구매입찰 가격이 톤당 \$110 선이라서 업계에서는 위에 열거한 인상요인이 확정되는대로 다시한번 연말에 안정기준가격을 인하조정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배합사료업계가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경영이 악화되고있어 배합사료가격을 어떻게 조정 할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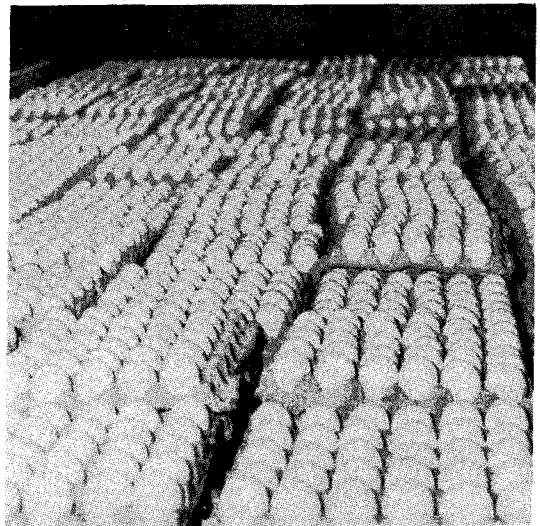
참고로 최근 옥수수 안정기준가격변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80. 12. 27.	\$ 195
'81. 12. 17.	\$ 180
'82. 1. 18.	\$ 160
'82. 3. 3.	\$ 150
'82. 7. 1.	\$ 145
'82. 11. 1.	\$ 135

## 식생활 개선과 양계산물

지난 10월 16일은 제 2회 세계식량의 날이었다. FAO(국제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식생활개선과 식량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농수산부에서도 식생활개선이 주관이 되어 관련협회의 도움을 얻어 한국일보와 차매지를 통해서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제호로 식생활 개선 운동을 펴나가고 있는 것은 이미 본지를



통해서 여러차례 소개되었고 그 내용중 양계산  
물과 관련있는 것은 발췌하여 본지에 게재하고  
있다.

더욱 특기할 것은 11월 1일부터는 축협중앙  
회(회장:김일로)특수사업부의 협조로 군(軍)  
도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운동이 벌여  
지고 있어 축산인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  
다.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만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내야 된다  
는 말로 통한다.

11월 1일부터 일부 부대에서 아침식사를 제  
란, 우유, 빵으로 식단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시  
험을 하여 결과가 좋으면 전부대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에 소요되는  
계란을 양축가들이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는 안되겠다.

이들 군인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사회생  
활을 할 때 식생활 개선의 파급 효과는 클 것으  
로 생각된다.

우유의 경우 학교급식으로 우유소비 인구를  
확대해 큰 성과를 보고 있다. 우선 눈앞의 소비  
확대도 중요하지만 10년후를 위하여 제 2세 국  
민의 식생활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고 못하고에 따라 양계산업의 위치가 크  
게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로 연결될 수 있다.



## 비타민-E 절약 및 상승 효과

셀레늄(Se) 사료첨가제

# SELMIX

가축의 필수 광물질제제 - 셀믹스 -

LUTEXAN-50 Powder 착색제



## Lutexan-50<sup>®</sup>

(Lutein Dipalmitate)

착색효과가 뛰어난(흡수이용율 100%)

(천연 키산토피ل 제제)

yellow-orange 색깔의

**LUTEXAN-50**  
(BBMC)

red 색깔의

**CITRANAXANTHIN**  
(BASF)



株式会社 中央ケミカル

본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89

(한신빌딩 602호) ☎ 783-8661-4